찬불가수 이종만의 30년 전 포크송



찬불가를 만들고 보급하는 일에 앞장서온 이종만 대표는 불교음악활동가이기 이전에 1980년~1990년대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했던 포크가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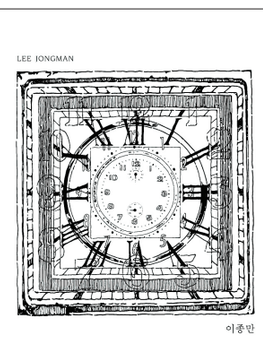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찬불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좋은 벗 풍경소리의 대표 이종만 씨가 30년 만에 LP음반(한정판) '이종만의 노래이야기' 를 발매했다.

이번 앨범은 이종만 대표가 그동안 발표했던 앨범 중 LP로만 발매한 1~3집, CD로 발매된 4집, 그리고 4.5집에서 발췌한 '베스트음반' 으로, '살아있는 기억', '음악이 생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장돌뱅이' 등 동시대에 대중과 소통했던 히트곡 10곡을 담았다.

정상유통을 하지 못했던 4집 앨범을 제외하고 1992년 3집 이후 30년 만의 앨범인 이번 앨범은 한국대중음악 100대 명반에 2장의 앨범을 올려놓은 인디밴드 허클베리핀의 전 앨범 LP제작발매로 관심을 모았던 '엘피플렉스' 에서 발매해 더욱 대중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1996년 '좋은 벗 풍경소리' 를 만들어 찬불가를 만들고 보급하는 일에 앞장서온 이종만 대표는 불교음악활동가이기 이전에 1980년~1990년대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했던 포크가수다.



이종만의 베스트앨범(LP한정판) '이종만의 노래이야기'.

좋은 벗 풍경소리 대표 이종만 씨
LP음반 '이종만 노래이야기' 발매
'음악이 생의전부는 아니겠지만' 등
1~4.5집 히트곡 모은 베스트앨범

1988년에 발매된 그의 데뷔앨범 '음악이 생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은 발표되자마자 10만 장이 넘게 팔렸을 만큼 그의 노래는 한 시대의 대중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음악이며, 가수 이종만은 1980~90년대 한국대중음악이 재조명되면서 다시 조명되고 있다.

대중문화평론가 최규성은 이번 이종만의 베스트앨범에 대해 "싱어송라이터 이종만을 기억하는 대중이 몇이나 될까? 1980년대 후반에 진중하게 대중가요를 향유했다면 개성 넘치는 그의 노래 '장돌뱅이', '음악이 생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정도는 들어보았을 것이다. 가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겠지만 그 곡들은 라디오와 음악다방에서 심심치 않게 흘러나와 대중의 심장을 저격했던 노래들이다. 슬픔을 머금은 그의 회색빛 음색은 한 번 들으면 헤어나기 힘든 중독성을 발휘하는 마력이 담겨있었다"고 말한다.

1988년 1집 음반부터 주로 힘들고 외로운 삶에 대한 따뜻한 눈길을 주며 희망과 위로의 이야기를 전하던 이종만의 노래는 결코 화려하거나 현란하지 않다. 하지만 그의 개성 있는 목소리와 노랫말은 일상에 지친 대중에게 포근한 위안을 주는 여전히 유효한 이야기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힘겨운 오늘에서 그의 노래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번 앨범 발매에는 따뜻한 이종만의 노래처럼 따뜻한 이야기가 또 하나 있다. 손으로 그린 앨범 자켓의 그림은 이종만의 딸이 아빠 이종만을 위해 직접 그린 것이라고 한다.

이종만은 "음악은 가사에 맞춰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 게을렀어요. 이번 앨범이 나오면 노래로 이야기하는 공연을 꿈꾸고 있어요. 제 노래로 활동을 너무 오랫동안 못했기에 큰 극장에서 공연하면 누가 올까 싶네요. 그저 10명이 오든 한 명이 오든 상관없이 여행 다니듯 전국을 도는 소극장 공연으로 제 음악으로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만간 무대에서 이종만의 노래를 들을 수 있을 듯하다.



이종만 가수는…

1979년 포크 음악 모임 '참새를 태운 잠수함' 으로 활동을 시작해 1986년 그룹 '이종만과 자유인' 으로 1집 앨범 '음악이 생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을 발표했다. 2집 '신사와 청바지', 3집 '나의 선택' 을 발표했고, 2002년 4집 '종로 아저씨' 를 발표했다. 1996년 '찬불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좋은 벗 풍경소리' 를 만들어 찬불가를 만들고 보급하는 일을 해 오고 있다. 1995년 첫 찬불동요집 발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50집을 발표했다. 국민 찬불가 '오늘은 좋은 날' 등 400여 곡의 찬불가를 발표했으며, 그 중 100여 곡이 자작곡이다.

2007년에는 두 차례의 개인 콘서트를 열었고, 행원문화상을 수상했다. 2010년부터는 뉴트리팝스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와 음악감독을 맡고 있으며, 연등축제 회향한마당 기획과 각 사찰의 산사음악회 기획 등 왕성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연등축제의 노래 '오늘은 좋은 날', 찬불동요 창작곡집 '풍경소리' '장돌뱅이' 등이 있다.



박봉수 作, 탈춤, 47×71, 1959, 한지에 담채(반추상).

해외서 주목한 한국 수묵추상화

지홍 박봉수 화백의 초대기획전
무우수갤러리 3월 4~28일까지

30주기 맞아 유족 소장 작품 전시
독자적인 문자 추상회화 세계 구축
1956년 분황사의 원효 진영도 그려

무우수갤러리는 3월 4일부터 28일까지 한국 수묵추상회화로 해외에서 먼저 주목을 받았던 지홍 박봉수 화백의 초대기획전을 연다.

박 화백은 국내보다 유럽에서 먼저 인정받았다. 국내에서는 주목받지 못했던 그를 유럽이 먼저 알아보았고 그의 그림은 유럽 전역에서 공유됐다. 이번 전시는 그 동안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던 박 화백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된 전시로 박 화백의 30주기를 맞아 유족들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로 구성됐다.

박봉수 화백의 작품세계는 박 화백만의 독자적인 문자 추상회화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분화 상태의 혼돈 속에서 추상적 묵혼을 조형하고 다시 의도적인 상형을 이루며, 디테일을 외면한 것 같은 무기교의 대담하고 투박한 선에서 강렬한 생명력이 보이는 그의 화풍은 고암 이응노, 남관 등의 추상화와 비견된다. 박 화백의 작품세계에 대해 원형갑 前 한성대 총장은 사물의 존재 표상을 찾아 유럽과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의 오지까지 떠돌며 미의 극한점을 모색한 창조 정신을 고흐의 작품세계에 비교하기도 했다.

박 화백은 1930년대에 일본과 중국에서 미술을 수학하고 1939년 조선미술전람회 입선을 시작으로 수묵 추상회화의 세계를 개척했다. 1956년에는 경주 분황사의 원효대사 진영을 그렸고, 1988년 서울올림픽기념 한국현대미술전에 문자추상 '서경(書經)' 을 출품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및 프랑스 미술협회(A.D.A.G.P) 정회원으로도 활동했다.

일찍이 박 화백은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더 많은 명성을 얻어 해외의 후원도 끊이지 않았다. 1950년대부터 미국, 일본,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의 초대전 및 개인전에 작품을 출품했으며 독일 베네딕트수도회 초청으로 수도원에 체류하며 유럽 스케치 여행을 통해 많은 작품을 남기기도 했다. 특히 1963년의 작품 '명상 그리스도' 는 로마 갈멜수도원 본원에서 카톨릭 '상본(像本)' 으로 제작되어 유럽 전역에 보급되기도 했다.

박 화백과 교유했던 시인 구상은 "오늘의 예술가, 즉 한국 전체의 예술가 중에서 가장 화선불이(畵禪不二)의 삶을 살고 소위 화선일미(畵禪一味)의 경지를 이룬, 선과 예술, 도와 예술을 함께 이룬 그런 높은 경지를 보인 이가 바로 지홍 박봉수라고 말할 수 있다"고 평했다. 뿐만 아니라 박 화백을 평하는 동료 작가들은 동양의 노장 사상과 결부되었다고도 하고 도를 닦는 수사나 승려 같다고도 하고 철학자 같다고도 평가했다.

조수연 무우수갤러리 대표는 "신라의 풍토성과 실험정신으로 빚어진 작품이며, 불교와 기독교의 동일성적 원형을 동양적 소재와 서양적 기법으로 표현했다는 작가의 작품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02)732-3690 박재완 기자